

#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거울삼자



21세기로 진입될 무렵부터 첨단 IT기술과 함께 인쇄정보산업은 각광 받는 산업으로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믿는다.

세계 최초 금속활자의 발명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쇄종주국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은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질 만큼 매력 있는 업종이며 이를 세계만방에 각인(刻印)시킨 선조(先祖)들의 장인정신(匠人精神)과 창의력은 그저 경외(敬畏)스러울 뿐 달리 표현할 적절한 어휘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현주소는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러울 뿐인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잠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하자.

사가(史家)들의 말을 빌리면 조선시대(朝鮮時代) 말기 진취적이고 개혁정신이 투철했던 고종황제나, 남달리 총명했던 명성황후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 봤지만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위에서 시키면 맹목으로 따라가야 하는 몇 백년을 지배했던 ①유교사상 ②당파싸움 ③매관매직이 성행했던 부패관료 사회 등 이런 요인들이 오랜 세월 함께 작용하여 국력이 쇠약해진 것이 망국의 원인이자 1910년 8월22일 한일병합 조약을 체결한 이완용 총리대신을 비롯한 친일파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지나친 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볼 만도 하다. 물론 이완용이 매국노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볼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어쩌면 행운인지도 모른다.

우리 인쇄인들 모두는 이러한 민족적, 국가적으로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거울삼아서 정(精)과 정의(正義)를 확실히 구분하고 어느 길이正道(正道)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 독과점욕(獨寡占慾)을 버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인쇄비 제값 받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간곡히 당부하며 당위성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 존속시
① 조급한 기획과 편집, 인쇄 및 후가공 등 철야작업 고착화
② 기계수명 단축 ↔ 조잡한 제품생산 (기능인력 건강 해침 ↔ 구인난 심각)
③ 품질경쟁력 저하로 대외 이미지 추락(수출길 막힘)
④ 인건비 상승·인쇄단가 하락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 심각)

초달청 기준요금 85% 이상 부찰제 제도 개선 후
① 1일 8시간 근무 가능 ↔ 근로환경개선 (일과 휴식의 균형조화 ↔ 자연과 우주의 섭리)
② 우수인력유입 가능 ↔ 기능인력난 자연해소
③ 창의력 제고 ↔ 우수예술작품 생산가능
④ 수출경쟁력이 강화됨 ↔ 국제시장에서 우위 선점
⑤ 지적 가치창출 ↔ 이익창출 공유가능

그동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화 발전하였듯이 앞으로 수년 내에 디지털시대를 지배할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가 틀림없이 오리라고 확신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연 그대로 모든 기기에 접목될 수 있는 새롭게 진화된 선진기술이 우리를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인쇄패러다임이 선진화되도록 우리 인쇄인 모두와 정부당국은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동안 침묵했던 대다수 인쇄인들이 일치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드디어 도래한 시점인 것 같다.

신 영 길  
 <대흥인쇄사 대표·인사모 수석부회장>